

# 평양의 가을풍경



록음우거졌던 거리들이 어 느새 가을빛으로 물들어 노 랑고 붉은 잎사귀가 바람 에 날리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가을정서를 안겨 준다.

천하절정의 구슬다락 경루 동, 세상에 볼도 없는 인민 의 리상거리 송화거리, 창천 거리, 미태과학자거리의 가로 수들과 중앙식물원, 과학기 술전당, 류경원, 인민아외방 상상,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 한 공원들과 휴식터들...

훌륭히 일떠선 수많은 창 조물들이 평양을 감돌아흐르 는 대동강, 보통강의 푸른 물결과 단풍진 나무들로 하여 더 이채롭게 보인다.

이 계절 평양의 명승지들 에 펼쳐진 가을풍치는 또 열 마나 장관인가.

마치 모란봉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하여 예 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 아온 모란봉,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인민의 명승지로 더욱 빛을 뿌리는 모란봉 은 한쪽의 아름다운 미술작 품을 연상케 한다.

노란 잎새 때인 은행나무들 과 붉은 잎새를 자랑하는 단 풍나무들, 그 사이사이에서 더 푸르러보이는 소나무들로

모란봉은 한층 더 화려하고 신선하게 채색된듯싶다. 소담한 단풍나무까지 드 러워진 평화정이며 모란봉의 단풍을 담아내고 출렁이는 못가, 자연의 감미로운 정서 에 몸도 마음도 한껏 취한 사람들의 모습...

풍치수려한 이곳에서 화관 을 펼치고 열심히 그림을 그 리고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 다운 평양의 가을풍경이다. 단풍든 가을풍치를 감상하 며 아침저녁 출퇴근길을 이 어갈 때면 머리가 맑아지고 새 힘도 솟아나는것만 같다고, 올해에 심은 채색수종의 나무들에도 단풍이 물들어 풍치를 물구는것을 보니 보 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이 절경을 어찌 자연의 조 화라고만 하랴.

나날이 진행되는 평양의 모습 이, 창조와 혁신의 숨결로 맥박치고 평평한 미래를 향 해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모습이 일만단풍에 어리어 더욱 수려한 평양의 가을 풍경이다.

본사기자 림광훈

##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⑧〕 고조선후기의 좁은옷단검관계문화를 계승한 락랑문화

우리는 락랑문화시기의 무 기장구류구획도 돌아보았다. 동행한 남경회택임강사는 락 랑문화시기의 원거리사격무 기와 근거리전투무기 그리고 방어장비들에 대하여 해설해 주었다.

원거리사격무기인 쇠뇌가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B.C. 3세기이전이라고 한다. 활과 나무를, 발사장치로 구성되 어있는 쇠뇌는 기계적성능과 구조가 아주 훌륭하여 일명 기계활로 불리워졌다.

이러한 쇠뇌의 발사장치를 이 정백동무덤에서 발굴되 었는데 당시의 높은 무기설 계 및 제작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정백동37호 나 무과무덤에서 발견된 120cm 정도의 《락랑단검》도 전시 되어있었는데 활재는 대부분 복판부분이 넓고 양옆으로 가면서 좁아지고 양쪽 끝부 분에는 청동으로 만든 활꽃 이가 끼워져있었다.



고조선후기 이른시기부터 전통적으로 쓰인 무기인 좁 은옷장검의 한가운데는 세 로 두드러진 속대가 있는데 그것은 자루를 꿰둘 수 있게 되어있었다.

남경회택임강사는 좁은옷 단검은 비파형단검의 후신으 로서 고조선후기문화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때문에 고조선후기문화를 좁은옷단검관계문화라고도 한다고, 좁은옷단검은 나무 락무덤을 쓰던 시기에는 물 론 귀틀무덤을 쓰던 시기까 지 쓰였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시된 쇠단검과 쇠장검, 고리자루 쇠칼들은 모두 검몸과 검자 루, 검자루맞추개 등을 따 로 만들어 조립할 수 있게 되 어있는데 이것은 락랑문화시 기 무기장구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의 하 나이라고 한다.



락랑문화시기의 유물 갖춤새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무기 장구류들을 돌아보면서 당시 우리 선조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지역에서 고조 선후기의 좁은옷단검 관계문화를 계승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 켜왔음을 잘 알 수 있 었다.

장속영

###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 안국사 9층탑

평성시 봉학동에 있는 사찰인 안국사 태평루의 앞에 있는 탑이다.

대체로 고려중기이후의것으 로 보고있다. 이 탑은 깨들 로 만들었으며 평면은 정4각 형이고 높이는 6.23m이다.

탑은 현재 2층의 기단과 8층의 탑몸, 탑머리로 되어 있다.

아래기단의 매개 면에는 2개씩의 연꽃모양을 새겼 는데 매개 오목이의 아래복 판에는 고사리꽃뿔모양의 장식 을 놓았다.

윗기단은 아래기단보다 락 높이며 그 매개 면에는 3개씩 의 기둥을 둘쳐 두 구간씩으 로 나누었다. 그리고 아래기단 갑돌움편과 윗기단 갑돌움편 에는 각각 복련 과 양련을 둘우 새겨 고려탑의 맛을 돌구었다.

복련을 살지 게 하면서 랑모 서리의것과 가운 데꽃잎은 겹잎으 로 하였으며 랑 모서리꽃잎의 마 구리는 귀꽃으 로 마감하였다.

양련은 여기 에 대조되게 선 새김으로 보일 듯 면꽃잎을 형 상하였다.

탑몸은 지금 8개 층만 남아있 다. 몸돌의 랑모 서리들에는 기둥 을 낮게 돌렸으며 1층 몸돌정 면에는 문장식 을 하였는데 그 속에 사리구멍인 듯한 네모구멍이 드러나보인다.

지붕돌들은 높을편이며 매층 3단씩의 처마받 침이 돌쳐졌다.

처마선은 가 운데부분은 곧

게 과고 랑쪽은 가볍게 들어 올렸으며 추녀끝에는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남았다. 탑머 리에는 보주형탑머리의 부분인 듯한 둥근 돌이 있어져있다.

안국사9층탑은 차례줄임을 크게 주지 않고 기단과 몸돌, 지붕돌의 높이를 높여 전반적 으로 위로 솟아오르는듯이 느껴지게 하였다. 이 돌탑은 안 국사가 고려시기에도 운영되었 다는 증거로 되며 당시 돌탑진 축술과 조각술을 연구하는데 가치있는 유산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 두뇌활성화에 좋은 아침식사

학업성적이나 사업능력면에서 아침식사를 꼭꼭 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연구자들이 아침식사를 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아침식사전과 아침식사후 뇌파를 측정하고 비교해본데 의하면 식사후에 두뇌가 보다 활성화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사화

## 연암동과 박지원 <4>

글 리성우, 그림 채대성

이 시기 연암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고 어려웠으나 이때 그의 실학사상과 문학창 작 및 저술활동은 일대 전성기를 기록하고있었다.

사상가, 저술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이 시기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문인청년들이 존경하여 부르던 《연암선생》이라는 별명인 연암이라는 호로 아주 굳어진것도 이 시기였으며 연암의 궁핍한 생활을 딱하게 여기고있던 규장각 직제학 유언호가 연암 동 가까운 곳인 개성의 류수조 전임하여 나온것도 이 시기였다.

연암동에서 연암의 독서저술활동은 매우 방해받고 다 방편적인것이였다.

그의 말년의 유명한 농정건의서인 《파농소초》의 저술자라고 실권경험도 이 시기 에 마련된것이였다. 연암 박 지원의 생애와 창작활동에서 연암동에서 보낸 10여년이 실로 중요한 기간이었음은 루 루이 론증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

정조가 즉위한지 4년이 되는 1780년 봄부터 오만방자 한 홍국영을 처벌해야 한다는 조정의 논의가 일어났다. 정조는 하는수없이 홍국영을 강원도로 류배보내었다.

홍국영이 조정에서 축출됨으로써 연암은 얼마간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암은 연암동시골을 떠나지 않았다.

몸이 비대하고 남달리 여 름을 타던 연암은 그해 6월에 숲이 울창하고 산이 막혀 여 찌는듯이 덥고 밟으면 모 기와 파리의 성하에다가 논고 에서 울어대는 맹꽂이소리가 시끄러워 시골을 떠나 한양 본집으로 돌아왔다.

연암은 연제나 여름 한철 을 한양에서 보내었다.

녀중 하나가 집을 지켜주 고있었는데 연암이 도착하자 주인을 대접할 길이 없어서 큰 변이 났다고 울며불며 야 단을 하더니 어디론가 도망 쳐버리고말았다. 밤 지울줄 사람도 없어서 연암은 행랑 집에 머물고 지냈는데 그 들과 허물이 없었다.

행랑집사람들도 어른, 아이 할것없이 즐겨 연암의 시중을 들어주었고 한가할 때는 연암 의 옛말에 귀를 모으면서 한 집안식구처럼 지내었다.

연암은 안팎의 모든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밤을 해주 면면 먹고 없으면 말고 며칠이 고 문득을 베고 누워서 책을 읽는데 망정도 쓰지 않고 맨 머리바람으로 지내었다.

하루는 문하생인 리서구가 연암을 찾아왔다.

그때 연암은 끼니를 건는 지가 벌써 나흘째였는데 망 건도 없는 맨머리, 맨발바람 에 창문턱에 발을 걸치고 누 워서 행랑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선생님!

## 4.25 팀 국내최강자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전반적선수들의 육체기술적 준비가 좋은 4.25팀은 상대 팀들에 대한 경기전술을 유세 세우고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여 이번 1부류축구연맹전참가 팀들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였다.

세우고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여 이번 1부류축구연맹전참가 팀들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였다.

전반적선수들의 육체기술적 준비가 좋은 4.25팀은 상대 팀들에 대한 경기전술을 유세



하였다.

려명림, 기관차팀, 리명수팀, 압록강팀도 자기식의 독특한 경기운영방식으로 훌륭한 경기모습들을 펼쳐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2021-202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부류축구연맹전 시상식이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높

은 기술과 경기도덕성을 발휘한 팀과 선수들에게 우승 컵과 메달 등이 수여되었다.

이번 1부류축구연맹전 최 우수선수상은 4.25팀의 원성 선수가, 우수선수상은 기관차팀의 김준진선수가, 최고득점자상은 압록강팀의 최우성 선수, 최우수문지기는 려명림의 유광준선수가, 경기도 덕상은 기관차팀이 받았다.

본사기자

네갓놈이 뭐가 돼서 투정질 이야. 네갓놈 먹이자고 종일 날의 지붕우에 올라가 썩은 북대기먼지를 들었단 말이나 먹지 않았으면 그만두거라, 개나 먹이겠다.

행랑사나이가 우는 아이의 밥을 훔쳐서 개에게 주어서 《그걸 풀수면 썩 박에 나가 죽어없어져라》 하고 욕질을 하면서 망쩍같은 손바닥으 로 애너적의 궁둥이를 두어 번 퇴게 갈기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분위가 이렇게 되자 연암 은 나훈만에 생긴 밥이지만 제대로 물수가 없었다. 숟가 락을 그대로 내려놓고 행랑사 나이를 타이렀다.

홀러지나갔다.

넌직한 사랑방에 들어서자 리서구는 품속에서 밀봉한 편지 한통을 내놓았다. 연암 의 팔촌형인 금성위 박명원이 써보낸 편지로서 청나라 에 가는 사절단이 이달안에 떠나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정사는 자기이고 부사는 정 원시, 서장관은 조정진으로 정해졌는데 문장으로 이름달 은 연암이 동행하여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겠는가 하는 내 용이었다.

편지를 읽고난 연암은 놀 람 정도로 흥분하면서 기뻐 하였다.

《내 평생에 한번 꼭 이루어보리라 마음먹었던것을 비

렘네.》

연암은 팔촌형 박명원을 만나러 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해 6월 24일에 연암은 압록강을 건넜다.

말안장 랑쪽에 부담주머니 를 달고 왼쪽엔 벼루, 오른쪽엔 붓 한자루, 먹 한장, 작은 공책 네권... 이것이 그의 행장의 전부였다.

사실일련은 압록강을 건너 서 33개 역참에 2천 30여리 의 먼길을 거쳐 드디어 8월 1일에 연경(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연경에서 나흘을 머무 르고 피서차로 열하에 나가 있는 청나라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먼길을 떠났다. 열하는 연경에서 동북쪽으로 420여리를 더 가야 하는 곳 이었다.

멀고 험한 곳이었지만 연암 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사일행을 따 라 밤낮으로 말을 달려 8월 9일 열하에 도착하였다.

열하에서 청나라의 이름있는 학자들과 만나 담론하고 열하의 절경들을 두루 구경 한 다음 다시 연경을 거쳐 그해 8월말경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연 암은 다시 연암동으로 들어 오 《열하일기》를 저술하기 시작하여 이 방대한 세계적 인 리행기를 불과 몇해사이 에 연암동의 초라한 초가집 에서 완성하였다. 《열하일 기》는 단순한 리행기가 아니 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속, 제도, 역사, 교적, 인 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실 상을 진실하게 그려놓은 작 품이었으며 연암의 실사구시 의 실학사상을 알기 쉽게 전 개해놓은 일종의 백과전서적 인 저작이었다.



《엄자가 아이를 그렇게 다루어야 쓰냐? 평시에 잘 가르치지 않고 칠없는것을 욕질만 하면 커서도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다네.》

연암은 리서구와 함께 행 랑방을 나왔다. 밖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지붕우 에 드리우고 별씨가 하늘에 흰 금을 그으며 서쪽으로 쭉

《벌어먹을 녀석갈으니... 연암선생님도 달게 드시는네